

# KSASF 뉴스레터 Day 1

## 환경과 에너지 2018



weather by asianson.design from the Noun Project

## 환경과 에너지 - 미래를 디자인하자!

8월 6일, 제10회 KSASF의 막이 올랐다. 이 대회에는 연구프로젝트 56팀(133명)과 과학에세이 70명으로 총 203명이 참가한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학부모 수백 명이 KSASF 참가등록을 하기 위해 KSA를 찾았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도우미들에게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참가 등록이 끝난 오후에는 KSA 정운 교장선생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KAIST 김수현 대외부총장과 국립부산과 학관 고현숙 관장께서 참석하셨고, 부산진구 갑 김영춘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께서 축사를 전달하셨다. 다음으로는 KSA 사물놀이 클럽 어우러짐이 멋진 공연을 선보여 참가자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정석우 KSASF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건네며 개막식을 마무리지었다.

개막식에 이어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님께서 '바이오와 공학이 만나서 여는 미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하셨다. 동물들의 생존 전략 등 다양한 생물학적 내용과 공학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참가자들이 연구프로젝트와 과학에세이가 나뉘어 활동을 하였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분야와 학교급에 따라 형설관의 각 교실로 이동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팀은 수학.정보과학 4팀과 과학 15팀으로 총 19팀이 참여하였고, 중학생 팀은 수학.정보과학 7팀과 물리.지구과학 17팀, 그리고 화학.생물학 13팀으로 총 37팀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그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를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 구두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에세이에 참여한 학생은 예지관 2층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미래 도시를 설계해 보자"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펼쳤다. 에세이를 모두 쓴 후 남은 시간에는 중강당으로 모여 과학 관련 영상을 시청하였다.



## 오늘의 일정

9:00~11:00

주제탐구활동 (형설관 2~4층)

13:00~16:00

주제탐구활동 (형설관 2~4층)

16:00~18:00

학교 소개 및 투어 (대강당, 교내)

20:00~22:00

친교활동 - 대항전 (대강당)

22:00~22:20

친교활동 (식당)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식단

아침식사 (7:30~8:30)

쌀밥, 소고기미역국  
영양스크램블에그  
멸치비엔나조림  
구이김/바나나  
배추김치  
허슬리시리얼, 우유

점심식사 (11:30~12:30)

달걀야채볶음밥/소스  
미소된장국  
매콤칠리간풍새우  
고구마치즈그라탕,  
베이비채소샐러드/  
요거소브로콜리/컬리플초회  
배추김치  
아이스홍시

저녁식사 (18:00~19:30)

쌀밥/계란파국  
카레라이스  
치즈불닭  
봉골레파스타  
견과류고구마맛탕  
과일샐러드  
배추김치  
짜먹는요구르트

\* 학교 사정에 따라 메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와 과학에세이 활동이 끝난 뒤에는 환영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환영의 밤 행사는 클럽 공연과 체육 대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로테이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강당에서는 클럽 공연이 펼쳐졌다. 클럽 공연에는 마술부 딜라이트, 댄스부 별보라, 힙합부 그루브, 밴드부 스타전이 참여하였다. 공연은 주로 1학년 재학생들이 이끌어 갔으나 생활 도우미를 겸임하는 2, 3학년 재학생들도 일부 참여하였다. 공연 도우미들은 열심히 준비해 왔던 만큼 공연에서 실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스타전, 별보라, 그루브의 '낭만 고양이', '거북선', '나는 나비' 등의 무대들은 공연의 열기를 돋구었다. 딜라이트의 마술 공연 또한 도우미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꾸미는 등 흥미로운 무대가 되었다.

대강당에서 클럽 공연이 열리는 동안, 체육관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먼저, 구전 동요 'Baby Shark'를 번안한 '상어 가족'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준비운동을 대신했다. 유치한 동작 때문인지 춤 추는 것을 수줍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준비운동이 끝난 뒤에는 피구 경기가 진행되었다. 4팀으로 나눈 뒤에 각 팀마다 왕을 정하고, 경기 도중 왕이 공에 맞으면 해당 팀이 탈락하는 규칙이었다. 피구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닭싸움이 이어졌다. 먼저 중학생 참가자들이 들이간 뒤에 나중에 초등학교 참가자들이 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한 시간 종료 후 가장 많은 사람이 생존한 팀이 승리하는 규칙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 릴레이 게임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로테이션에서는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 인터뷰 Interview



임현진, 김재현

Q. 어떤 주제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까?

A. (현진) '버섯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의 효율성 탐구'입니다.

Q. 연구프로젝트 발표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A. (현진) 흡착성 미세먼지 실험에서 거즈를 준비할 때 그 거즈에 미세먼지가 붙어있는지 확인을 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Q. 과학 에세이 주제인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미래 도시 설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 (재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고, 전기료 땀에 부모님께서 걱정하셔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우미 김건호

Q.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A. KSASF에서 학생 도우미를 맡고 있으며, 오늘 딜라이트에서 마술 공연을 하였습니다.

Q. 딜라이트 공연에서 마술을 할 때 도우미 역할의 참가자가 계란을 발견하고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연출이었습니까?

A.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계란이 떨어졌을 때 매우 당황했는데, 다행히도 참가자들이 호응해주어서 큰 일 없이 잘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